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300천km ²	G D P	2,720억 달러 (2013)
인구	97.5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2,790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페소(Peso)
대외정책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42.45 (2013년 평균)

- 필리핀은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서국가로,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금, 구리, 니켈, 크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및 업무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수출구조가 특정국 및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또한 부정 부패 척결, 인프라 구축은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과제임.
- 지역 및 계층 간의 심한 소득격차, 이슬람 반군과의 오랜 분쟁으로 사회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며,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2010년 5월 선거에서 당선된 베니그노 아키노 현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성장세와 지속적인 부정부패 청산 노력으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여 2013년 5월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여당연합의 승리를 이끌면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f
경제성장률	7.6	3.6	6.8	7.2	6.5
재정수지/GDP	-2.4	-0.4	-0.7	-0.1	-0.8
소비자물가상승률	3.8	4.7	3.2	2.9	4.4

자료: IMF, EIU.

□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로 2014년 6.5% 성장 전망

- 정부지출 증대, 민관협력(PPP) 사업 본격화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선거 관련 지출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등으로 7.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14년에는 2013년 11월 하이엔 태풍으로 인한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6.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식료품 가격과 수입물가 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로 전망

- 국제 식료품 가격 하락과 폐소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화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 안정으로 2.9%를 시현하였음.
- 2014년에는 2013년 하이엔 태풍 피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 미만의 양호한 수준

-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경기부양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0.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선거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동 비율이 0.1%로 하락함.

- 2014년에는 인프라 사업 추진, 하이엔 태풍 피해 복구 등에 따른 지출 확대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8%로 상승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

- 필리핀은 과거 수입대체, 농업·산림자원 수출 위주의 산업화 추진 결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재,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열악한 인프라, 높은 전기세 등이 제조업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평가됨.
- 제조업 중에서는 정유, 석유제품, 반도체 및 전자부품, 소비재 산업의 비중이 큰 편이며, 제조업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 60%를 점유하고 있어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평가됨.

□ 특정국에 편중된 수출구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필리핀의 수출은 중국, 일본,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경기 변동이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13년 기준 3개국이 필리핀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일본 21.3%, 미국 14.7%, 중국 12.4% 순임.
- 필리핀은 세계 4대 해외인력 송출국 중 하나로 해외근로자가 인구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이 GDP의 8.5% 수준으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외환보유고 유지, 국내소비 촉진에는 긍정적 이지만, 장기적 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우며 60% 이상의 해외근로자가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 있어 중동 국가 경기와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만연된 부패 및 행정 비효율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필리핀의 사업환경 악화 3대 요인으로 부정부패와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를 지목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에 따르면, 필리핀은 177개 평가대상국 중 94위로, 2012년(105위)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나.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도 높은 편

- 필리핀은 세계 5대 광물 부국으로, 금, 구리, 니켈, 크롬, 알루미늄의 추정 매장량이 세계 5위권 수준임. 또한 개발허가권 부여면적이 광물 매장지역의 2%에 불과하여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큼.
-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 합헌 판결(2004년)로 외국인의 자원개발투자가 허용되었으나, 취약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개발비용,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개발이 부진함.
 - 특히, 토지 소유, 벌목, 수자원 이용 등 부수적 권리는 여전히 필리핀 국적자 및 필리핀 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어 외국인의 자원개발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양호한 BPO 산업환경

- 풍부한 영어구사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콜센터 등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필리핀의 BPO 산업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자리매김했으며, 2012년 기준 매출액은 130억 달러, 고용인원은 7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필리핀 정부는 교육부문 투자 확대, 여성 콜센터근로자의 야간노동 허용, 외국인의 BPO 분야 투자에 대한 면세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

- 과거 정부의 관심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해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연된 결과 인프라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96위로, 중국(48위), 인도네시아(61위), 베트남(82위) 등 인근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아키노 정부는 부패척결, 재정적자 축소와 함께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3대 경제발전 정책으로 천명하고,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개발에 나서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 투자안 심의기간 단축, 보건의증 획득 요건 완화 등 투자절차 간소화, 온라인 납세시스템 구축 등 필리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로 전년(133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108위를 부여하였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 글로벌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쟁력은 149개 평가대상국 59위로,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 재정수입 확충 및 정부채무구조 개선에 성공

- 필리핀 정부는 주류세와 담배세 신설 등을 통해 세수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예산편성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 누수를 최소화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글로벌 저금리 기조를 적극 활용한 차환정책을 통해 정부부채의 평균만기는 약 11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수입 대비 이자지출 비중과 정부부채 중 외화표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음.
 - 정부수입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2010년 24%에서 2013년 18.4%로, 정부부채 중 외화표시 부채비율은 2010년 41.5%에서 2013년 9월말 32.6%로 하락하였음.

3. 대외거래

□ 소비확대, 재해복구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 전망

- 필리핀은 원유, 식료품,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전자제품, 가구, 목제품, 가공식품 등의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189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2013년에는 소득증가에 따른 국내 수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85억 달러를 기록함.

- 소비 확대, 재해 복구 등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2014년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1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2014년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

- 필리핀은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BPO 산업과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수지 흑자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만회하고 있음.
- 2012년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 해외근로자 송금 확대로 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BPO 산업과 관광산업 활황,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힘입어 94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201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과 BPO 산업 호황,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억 달러 가량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시현

- 필리핀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시현,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에 힘입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급증 등으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7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8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의 총외채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된 고성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f
경 상 수 지	7,179	5,643	6,949	9,423	9,360
경 상 수 지 / GDP	3.6	2.5	2.8	3.5	3.2
상 품 수 지	-16,859	-20,428	-18,926	-18,525	-18,680
수 출	36,772	38,277	46,384	44,736	47,760
수 입	53,631	58,705	65,310	63,261	66,440
외 환 보 유 액	53,991	65,700	71,656	73,792	81,009
총 외 채 잔 액	74,645	76,923	80,799	82,749	87,456
총외채잔액/GDP	37.4	34.3	32.3	30.4	30.1
D. S. R.	10.4	12.5	9.9	10.2	9.0

자료: EIU, IIF.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총선 및 지방선거 승리로 현 정권의 안정적 정치적 기반 형성

- 2010년 5월 당선된 자유당(Liberal Party)의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성장세와 지속적인 부패청산 노력에 힘입어 지지세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임.
 - 여당연합이 2013년 5월 실시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상하원 모두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아키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8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책 차이보다는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력 인물의 인기 등으로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임.
 - 현 아키노 대통령도 청렴한 이미지와 부친인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전 대통령 서거(2009. 8월초)에 따른 전국적 추모 열기가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 요인 상존

- 빈곤층이 두둑고 중산층은 미약하며 지니계수가 0.48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도 심각함.
 - 국민의 54%가 일평균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반면 일부 재벌가문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과실이 부유층에게 집중됨.
- 빈곤층의 60% 이상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간 소득격차도 큰 편으로, 빈부격차로 인한 범죄 증가 및 폭동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존재

-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¹⁾에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ILF, 1979년 MNLF에서 분리),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

1) 필리핀 남쪽에 위치한 민다나오 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이 이주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슬람 세력들이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12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짐.

샤프(Abu Sayyaf), 방사모르 이슬람자유전사(BIFF) 등 이슬람 단체가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대정부 무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MNLF(1996년)에 이어 2014년 1월 MILF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이슬람단체의 테러활동이나 정부군과의 무력충돌은 이어지고 있음.

○ 평화협상 재개, 핵심 지도부 체포 등으로 공산반군인 신인민군(NPA)의 테러 가능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는 경제, 군사,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미국은 필리핀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국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 체류 필리핀인은 300만 명, 필리핀 체류 미국인은 10만 명에 달함.

○ 양국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에 따라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세력 진압 지원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이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고조에 따라 아키노 정부가 '대미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하여 2014년 4월 미국의 필리핀 군사기지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이 체결되었음.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우호적 관계 지속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대 필리핀 ODA 중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2008년)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양국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라는 외교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중국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2013. 1월)하는 등 외교적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

○ 중국은 필리핀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경제 관계는 밀접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

-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UN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중재를 신청(2013. 1월)하였으나 중국은 참여를 거부한 이후 강경대응을 이어가면서 아키노 대통령의 방중 계획(2013. 8월)도 중국의 거부로 무산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정상적인 채무상환능력 유지 전망

○ 필리핀은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으며, 2014년 3월말 현재 OECD 회원국의 ECA 앞 연체액도 없어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더욱이, 필리핀은 2009년 이후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필리핀 신용등급은 상향 추세

○ OECD는 물가 안정과 외환보유액 증가, 은행산업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필리핀 국가신용등급을 2013년 6월 3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경상수지 흑자, 풍부한 외환보유액, 재정수입 증대 정책,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최근 필리핀의 외화표시 장기 채권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있음.

- S&P는 2012년 7월, 2013년 5월에 이어 2014년 5월에도 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여 현재 BBB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Moody's도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3년 연속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Baa3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Fitch는 2013년 3월 B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2 (2013. 12)	C2 (2013. 4)
OECD	3등급 (2014. 6.)	3등급 (2013. 6.)
S&P	BBB (2014. 5.)	BBB- (2013. 5.)
Moody's	Baa3 (2013. 10.)	Ba1 (2012. 10.)
Fitch	BBB- (2013. 3.)	BB+ (2011. 6.)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Euler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단기 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1969년, 1994년·2009년 개정), 무역협정(1978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5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6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4년 3월말 현재 1,473건, 31억 달러(누계 기준)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임.

<표 4> 한·필리핀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필리핀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7,339	8,211	8,783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수 입	3,571	3,284	3,706	반도체, 원유, 동제품
합 계	10,910	11,495	12,489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필리핀은 2013년 소비심리 개선,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 하이엔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6.5%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 안정에 힘입어 2.9%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하이엔 태풍 피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근로자의 송금, BPO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경상 이전수지 흑자가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상쇄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 미만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함.
- 2010년 취임한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성장세와 지속적인 부패청산 노력으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실시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음. 다만, 빈부격차 확대,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거시경제지표 및 외채관련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동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